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로 양파 재배

농진청, 경남 함양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사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전국 9 곳에 최신 농업 기술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 기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은 3일, 9개 시범지구 중 ‘노동력 절감 모형(스마트기계화모형)’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설명회 및 연사회를 열고, 첨단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경남농업기술원, 함양군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사회에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5종(육묘, 경운, 정식, 관수, 방제)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시연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 시승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먼저, 육묘의 경우, 비가림, 자동관수, 차광시설 등을 갖춘 ‘공정육묘’



시설에서 품질이 균일한 우량 양파 묘 생산 체계를 구축해 육묘에 드는 노동력을 크게 줄였다. 공정육묘 시설에서 생산된 양파 묘 생산성은 관행 노지 육묘보다 약 10% 높다. 자율주행(Lx8 수준) 트랙터로 휴갈이와 평탄화 작업도 시연했다. 고정밀 항법장치(GNSS) 기반의 자동조향 선화, 안전인식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 트랙터는 수동운전 시 발생하는 30cm 이내 오차를 7cm 이내로 줄여 정밀한 농작업을 할 수 있다. 고정밀 항법장치(GNSS) 기반의 직

진 방향 조절 기술 등이 적용된 자율주행 정식기로 양파 묘를 심는 작업도 선보였다. 위치정보와 작업 환경을 고려 정밀 농작업이 가능 수동운전에 비해 노동력을 약 2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스마트 관수 기술은 토양 내 수분 함량을 알 수 있는 지표인 ‘토양 수분 장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 관행 농법보다 생산성이 약 20%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제의 경우, 무인기(드론)에 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GIS) 장치를 탑재해 특정 위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방제를 시작한다. 일반적인 동력방제기에 비해 작업 인력을 3명 이상에서 1~2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날 선보인 기술 외에도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작황 예측,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한 수확 기술 등 총 7종의 스마트농업 기술이 경남 함양의 노지 양파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에 투입,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지 양파 생산성이 최대 40% 증가하고 노동력은 70%까지 줄어 10아르(a)당 기존 소득 대비 16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상기후 대응, 농작업 인력 최소화 등 지역 현안에 맞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투입이 중요하다. 함양 시범지구의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융복합 공모사업을 벌여 내년에는 상용화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노지 스마트농업 표준모형(모델)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3일 김제에 위치한 식품제조 전문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을 찾아 ‘2024년 지방스런 농식품기업’ 현판식을 진행했다.

한우물, ‘지방스런 농식품기업’ 賞

농협 전북, 경영성과 등 다양한 심사 거쳐 우수 기업 수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3일 김제에 위치한 식품제조 전문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을 찾아 ‘2024년 지방스런 농식품기업’ 賞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 회제를 맞는 지방스런 농식품기업 賞은 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전국 농식품기업 중 경영성과, 국산 농산물 활용,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부문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업에 수여된다.

수상 기업에는 대출금리 우대, 컨설팅 판로 확대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은 냉동복합음식 제조업체로 편리함과 건강한 식품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기업을 경영 모토로 삼고 있으며, 현재 4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우리 쌀을 활용한 냉동밥 제품으로 K-Food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신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경진원, ‘2024년 희망리턴 패키지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들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 전주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이 추진하고, 경진원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진단 △경영개선·재창업교육 △사업화 자금(최대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경영개선지원 54업체(경영진단 157업체), 재창업사업화 지원 34개사를 지원했다.

금번 행사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선배 우수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도약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 88개사 대표 및 임직원 및 도내 선배 우수 소상공인 16개사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후배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 선배기업 특강을 진행했다.

/김옥기기자

‘농업인행복콜센터’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농협전주시지부 - 전주농협, 전미동 돌봄대상 어르신 댁 벽지·장판 교체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와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3일 전주시 전미동에 거주하는 고령의 돌봄대상 어르신 댁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협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이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신하여 노후화된 벽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임인규 조합장은 “고령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돌봄대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촌현장봉사단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대상자’ 중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밀착형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NH농촌현장봉사단, 인월면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과 농협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임직원들이 3일 인월면에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업인 행복콜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돌봄대상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봉사단의 실사를 거쳐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현

장 지원을 진행했다. 최모(84세) 어르신은 “평소 생활이 불편한데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협의 도움을 받아 40여년만에 새롭게 도배를 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대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영장류의 중요성·최근 연구동향’

바이오진흥원,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세미나 개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함께 영장류의 중요성 및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코로나9 팬데믹 이후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용 원숭이가 적극 이용되며 동물실험 수요가 폭증하였고, 최근 미국의 독점 및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가격 급등 및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영장류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생명자원(영장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동성유전인자 및 mRNA의 중요성을 포함한 영장류 연구의 최신 동향(김희수 부산대학교 교수), △첨단생명자원에서 연구용 원숭이자원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현병화 KAIST 책임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실험용 영장류 자원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전북이 국가전략 생명연구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